

KBS기자 “전주소·돼지 우리냄새 난다”

# 전북에 큰 파장

도 “도민 모욕하는 사태, 상황 엄중히 파악·대응”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해당 기자 등 징계” 촉구  
민주 윤준병 의원 등 정치권에서도 비판 목소리

KBS 소속 기자가 전북 전주를 두고 ‘소 냄새, 돼지우리 냄새’가 난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공영방송 기자의 경솔한 발언이 전파를 타고 전국으로 퍼지면서 지역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7일 KBS1 라디오 프로그램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에는 KBS 소속 A기자가 출연했다. A기자는 진행자와 전주에 있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이전 천변에 관한 대화를 나눴다.

당시 A기자는 “제 친구 중에도 운용역(자금 담당 인력)으로 있다가 돼지우리 냄새가 난다며 올라온 친구가 있다”고 발언했다. 그는 “여기 개인에게서 풍성한 고풍”이라며 “지방은 이런 고부카치 산업은 절대로 못 가지느냐 이런 건 다 서울만 가져야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전북도는 9일 “지난 7일 KBS A기자가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전주를 폄하한 발언에 대해 매우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전북도는 순직하신 소방관의 전북도청장을 치르는 중이라 해당 사태에 대한 입장표명을 자제했으나 이 사안은 전북도민을 모욕하는 사태인 만큼 엄중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도 성명을 내고 “지역을 비하하고 조롱한 방송에

대해 KBS사장은 즉각 사과하고 해당 기자와 방송 관련자를 징계하라”고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재이전설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공영방송에서 친구자 별도의 사과나 설명도 없이 슬그머니 해당 방송 분의 다시 듣기만 삭제한 KBS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현직 기자가 방송법 제조에 따른 방송의 공적 책임을 무시한 채 지역을 폄하·비하하고 갈등을 조장한 부분은 명명백백하게 사실관계를 바로 잡고 전북도민에게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공정미디어위원회는 “KBS가 또 대형 방송사고를 쳤다. 이번에는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막말이 공중파를 타고 전국으로 생방송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KBS 사장은 당장 관계자들을 징계하고, 전주시민과 대한민국의 모든 시청자에게 지금 당장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스

##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새내기 소방관 영결식 ‘눈물바다’

유가족·동료 소방관들 오열

“내 새끼 공일아 왜 거기 있어 빨리 나와...”

김제시 금산면의 단독주택 화재현장에 출동해 인명을 구조하다 순직한 성공일(30) 소방교의 영결식이 9일 거행된 가운데, 유가족들이 오열했다.

오전 10시 운구차량이 영결식장으로 들어서자 정복을 입고 도열한 소방관들이 거수경례로 고인을 맞이했다. 유가족들이 오열하며 뒤따랐다. 유가족의 울음소리는 영결식장을 메운 장송곡보다 더 크게 울려 추모객들을 안타깝게 했다.

국기에 대한 경례, 고인에 대한 묵념, 약력 보고로 시작해 1계급 특진 추서, 훈장 추서, 조전 낭독, 영결사에 이어, 고인과 동기인 이정환 소방사의 조사가 시작되자 유가족들은 통곡했다.

이 소방사는 “지난해 1월 광주소방학교 교육과정에서 처음 만났을 때 총명하고 열정적으로 교육에 임하던 너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며 “교육 중에 갔던 영광 불감사에 핀 꽃을 다시 보자고 한 1년이 곧 다가오는데 이제 함께할 수 없다는 사실에 너무 가슴이 아프다”며 울먹였다.



故 성공일 소방교의 영결식이 9일 거행된 가운데, 참석한 동료 소방관들이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성공일 소방교는 지난 6일 전북 김제시 금산면 단독주택 화재 현장에서 인명 구조작업 하다가 화마에 휩쓸려 순직했다.

또 “동료로서 함께하지 못해, 지켜주지 못해, 외롭게 혼자 남겨뒀서 미안하다. 왜 이런 모습으로 너를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건지 너무 한스럽고 가슴이 메어온다”면서 “이제는 좋았던 기억과 아름다운 마음만 품고 이제는 뜨겁지도, 어둡지도 않은 지금 있는 그곳에서 영원한 평안을 누리길 바란다”고 했다.

이후 헌화가 진행되는 동안 유족들은 울음을 그치지 못했다. 고인의 어머니는 “왜 내 새끼를 그곳에 혼자 들여보내 이런 일을 만드느냐”고 울부짖었다. 슬픔을 삼키던 동료들도 눈물을 터뜨리며 영정에 국화를 한 송이씩 놓았다.

영결식이 끝나고 운구행렬이 식장을 빠져나가자 유족은 고인에게 “내 새끼 우리 공일아 왜 거기 있어 빨리 나와”라며 소리쳤다. 도열하며 이를 지켜보던 동료 소방관들의 얼굴에도 눈물이 한 방울씩 맺혔다. 눈물을 애써 참은 채 식장을 빠져나간 고인의 친구 또한 결국 눈물을 참지 못해 비단에 주저앉아 “우리 공일이 어떡하냐”면서 오열했다. /뉴스

### 남원시의회, 임시회 개회... 추경심사·시정질문 등 진행

남원시의회(의장 전정기)는 3월 9일부터 3월 24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제257회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정질문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남원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남원시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남원시 농업인들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의 조례안 10건과 시장 제출 안건 13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전정기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임시회 기간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집단 지성을 발휘해 시민들의 기



대에 부응하고 시 발전을 앞당기는 앞장 화기가 되길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보편적 민생회복 지원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남원시에 강력하게 촉구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임정엽 “마사회 새만큼 이전 새만큼 내부개발 견인해야”

임정엽 전주시를 국회의원 예 비후보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 국가사회를 새만큼으로 이전해 해양레저관광 복합단지 중심의 새만큼 내부 개발을 견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예비후보는 “국토해양부가 올해 상반기 안으로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부터 이전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제주특별자치도와 경남이 마사회 유치전에 본격적으로 나선 시점에서 새만큼으로 마사회 이전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예비후보는 마사회가 과천시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정부의 신도시 개발상도 구체화되고 있는 점, 서울 서초구에 인접해 개발 수요가 높아가고 있는 점, 제주도와 경남이 유치경쟁에 나서고 있는 점, 마사회에서도 이전 부지를 물색 중이라는 내부 정보 등을 비추어볼 때, 새만큼 이전 계획 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별취재반

### “중장년층 지원 정책 부재”

양해석 도의원, “도, 일자리 중심으로 다각적 지원해야”

전북도의회 양해석 의원(남원2)이 제308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김관영 지사를 상대로 정책시각차이에 놓인 소위 낡은 세대인 중장년층에 대한 지원 정책이 거의 전무한 수준이라며 지원사업의 추진을 촉구했다.

양 의원은 따르면 도내 인구 중 중장년층(40~65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기준 38.3%로 청년층(21%)과 노년층(22%)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정작 도정의 정책 전반에 있어 중장년층을 위한 별도의 정책은 일부에 불과하거나 분야에 따라서는 아예 부재하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고용노동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전국적으로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중장년내일센터(일자리지원센터)가 총 31개소나 되지만 전북에는 고용노동부 산하 노사발전재단이 운영하는 중장년내일센터 단 한 곳밖에 없으며, 기존에 있는 고용복지센터 내에 중장년층을 위한 전담창구를 설치한 곳 역시 전북의 경우는 8개의 고용복지센터 중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질타했다. 덧붙여 사회조



사 결과 사회적 고립도가 심각한 상태이며 대부분 삶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심리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등 적극행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 2013년부터 100세 시대를 대비하여 50플러스재단을 설립해 중장년층의 재취업과 창업을 위해 151개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가 하면 생애살게 교육 및 인생막 지원, 대학연계 직업전환 과정 지원 등 5개 분야 48개 사업에 대한 로드맵을 수립해 운영 중에 있다. 경남도는 지난 2019년부터 경남50플러스 행복내일센터를 개소해 교육·일자리·사회공헌활동·커뮤니티·생애살게 등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 중인 반면, 전북도는 중장년 지원센터가 아직까지 하나도 없다.

양 의원은 전북도에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장년층의 복지사업 추진,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maeil.com

# 전주천을 살립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